

책과 디자인의 만남이 이룬 시대 흐름

〈출판과 미술〉 전시회 열려... 환기미술관서 8월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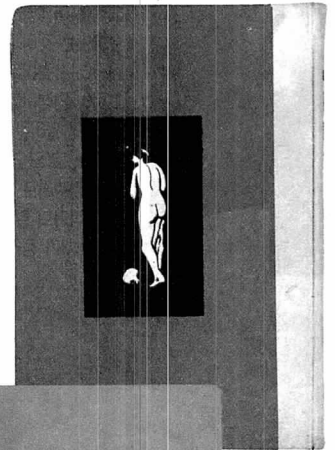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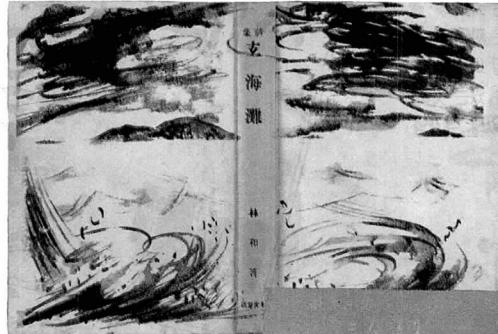
출판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하는 이색 전시회가 지난 6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서울 구기동 환기미술관(관장 오광수)에서 열리고 있다.(391-7701) 개화기부터 1950년대 초 육이오동란기에 이르는 근대장정 특별전,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시기별 특징을 보여주는 북디자인전, 출판미술의 가장 중요한 미술적 요소인 일러스트레이션과 타이포그라피전 등 출판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보인다. 전시된 책들을 통해 북디자인의 또다른 세상을 들여다본다.

· 근대장정의 이모저모

서양문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한 개화기부터 양장본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개화기 등 근대기에 보이는 우리나라 장정들에서 화가와 책, 글과 장정이 어우러지는 조화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 황야에서

김영보 지음, 김영보 장정.
조선도서주식회사,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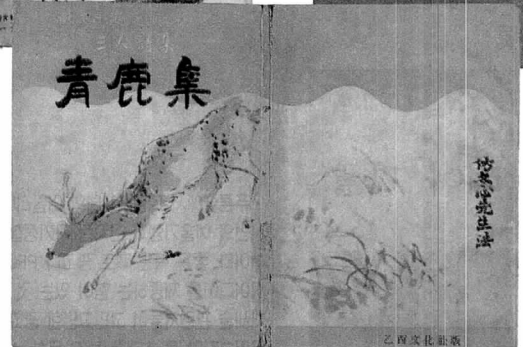


· 현해탄

임화 지음, 구분웅 장정.
동광당 서점,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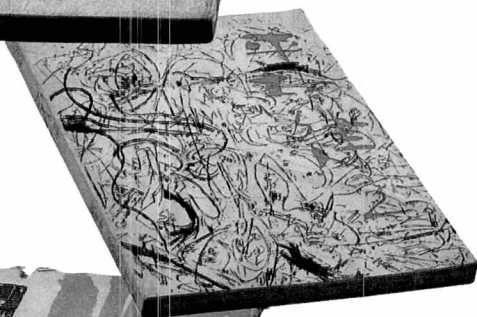
· 청록집

이무영 지음, 정현웅 장정.
조선출판사,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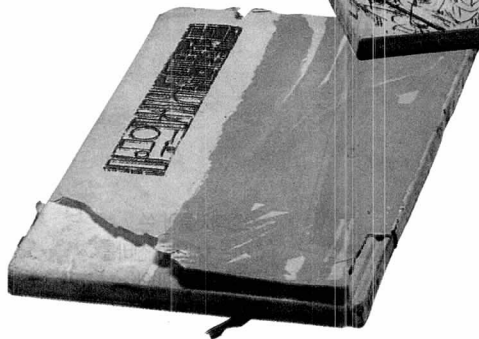
· 순례

오규원 시집, 김승욱 장정.
민음사, 1973



· 평균율 2

홍동규·김영태·마중기 3인 시집.
김영택 장정.
현대문학사, 1972



· 춘향이 마음

박재삼 시집, 서세옥 장정.
신구문화사, 1962

· 1950-1980년대 출판미술

권영빈·김승욱·김영태·이제하·이중환·오규원 등이 맡았던 빼어난 장정은 근대 장정 이후 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단행본 시대'로 불리는 70년대 후반부터 '디자인' 개념은 본격화하고, '인클' 세대와 만난 80년대초 디자인은 다양한 시각문화적 의식을 보여준다.

· 삶의 해답을 찾아서

김만행 편, 서기훈 디자인.
동서문화사, 1984

· 민비암살

쓰노다 후사코, 조의환 디자인.
조선일보사, 1988



· 두가지 견해

우베 윤준, 정병규 디자인.
민음사, 1989



· 90년대 출판미술

개성 있는 북디자인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문 북디자인 집단도 등장했다. 출판사마다 이미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색깔 있는 북디자인을 앞다퉈 선보이면서 출판계에 신선한 자극을 던졌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이즈음 북디자인은 멀티미디어 환경, 새로운 서체환경,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실험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곽재구 지음, 서기훈 디자인
한양출판, 1993



· 재원미술작가론
홍동원 디자인
도서출판 재원, 1995

· 한국사 시리즈(전27권)
한길사 편, 정병규 디자인
한길사, 1997

· 나비
노천명 지음, 박상순 디자인
슬, 1997

· 꺾꺾
이외수 지음, 그레 디자인
가서원, 1997



· 고고학 개론
이선복 지음, 이론과실천 편집부 디자인
이론과실천, 1997

· 가슴이 붉은 딱새
오규원 지음, 김은희 디자인
문학동네, 1996

· 한국기증문화의 탐구 6 마을숲 · 외
김학범 외 지음, 열화당 편집부 디자인
열화당, 1993

· 우리 시대의 수목인 남천
김두섭 디자인
안그라픽스, 1997



· 김치 천년의 맛
김만조 · 이규태 · 이여령 지음, 홍동원 디자인
디자인하우스, 1996